

투데이

광주시의회 내년 예산 240억 삭감

의회 출범후 최대 삭감액...예년 3~10배

“행정 발목잡기” 반발...예결위 심의 주목

광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년보다 많은 24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삭감액인데다 작년 삭감액 83억 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해 시급하지 않거나 사업비 과다·사업효과 미흡 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 하지만 일부 사업부서와 기초단체 등은 “행정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 심의가 주목된다.

4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4개 상임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주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 결과, 시 예산 240억 원을

만 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삭감액은 광주시 내년도 총 예산 3조2864억 원의 0.73%에 불과하지만, 예년 삭감규모와 비교하면 많게는 10배에서 적게는 3배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상임위 기준 삭감액은 지난해 83억 4300여만 원 ▲2010년 32억여원 ▲2009년 21억 1600여만 원 ▲2008년 56억 1000여만 원 ▲2007년 47억 8600여만 원 등이다.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 삭감액은 산업건설위원회가 24건에 1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행정자치위원회 19건 71억 원, 환경복지위원회 1건 8억 원, 문화위원회 2건 5800만 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 삭감이 된 주요사업은 ▲도시철도공사 운영(삭감액 39억

원)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8억 원)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47억 원) ▲남구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22억 원) ▲축산물 유통시설(9억 70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장비 구입(1억 9000만 원) 등이다.

특히 이 중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남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등 남구의 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시비)이 줄줄이 전액 삭감되면 서 남구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편중된 지역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의 경우 가운데 광주시장이 그동안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시시설인 ‘수완 수영장’을 예산으로 배정하고 대신, 남구에 ‘선물’로 준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의회가 강 시장을 간접적으로 겨냥해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시 교육청 예산 39억 7000만 원을 삭감했다.

감되자 광주시는 각 실·국별로 대응 방법을 찾아 예결위원들을 전방위로 만나는 등 예결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삭감된 예산은 얼마나 되실릴지는 미지수다.

남구청 측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여건에 주어진 예산마저 삭감하면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겠느냐”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상임위에서부터 삭감하면 사업부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정당한 예산심의의 권한을 바탕으로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삭감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부는 예결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시 교육청 예산 39억 7000만 원을 삭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질검사·위생교육 않고 위생 취급기준 위반까지

전남 도축장 15곳 위생관리 ‘엉망’

행정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4일 “한미 FTA에 친환경 신선육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도축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까지 1개월 가량 전남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ACCP 기준원과 합동으로 소·돼지·닭·오리 도축장 19곳을 대상으

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소와 돼지 도축장은 시설이 낡아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닭과 오리 도축장은 현대식 시설로 자동화 돼 있어 위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요 적발내용은 ▲수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1곳)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1곳)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16일까지 도내 종돈장 22곳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구제역을 포함해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리병 등 5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해 실시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뉴스 브리핑

青 흥보기획비서관 이철희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흥보기획비서관에 이철희(52) 전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춘추관장에 이종현 전 서울특별시 대변인(48)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철희 내정자는 업무능력과 아이디어·열정을 고려했고, 이종현 내정자는 풍부한 흥보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봤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립도서관 오늘부터 시범운영

새해 1월 정식 개관하는 전남도립도서관이 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청 주변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들어선 도립도서관은 시범운영기간 중 월~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연합뉴스

전기료 또 인상

오늘부터 4.5%
피크요금제 확대

동계 전력수요 관리 기간이 시작되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용도별로 주택, 농사용은 동결되지만 산업, 일반, 교육용, 가로등 등 나머지 4개는 3.9~6.6% 오른다.

올해 8월 4.9% 한차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연간 인상률은 9.63%에 이르게 됐다.

1년에 전기요금이 두번 오르는 것은 1981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또 10~12시, 17~20시,

22~23시 등 겨울 피크시간

대에 높은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적용이 크게 확대되고, 적용 요금도 오른다.

특히 주요 산업체가 쓰는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6.6%로 결정되면서 대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영산강 둑치 생태공원 호안 20m 봉괴

하수처리수로 지반 약화...의산청 “1월 준공 차질 없다”

4대강 사업으로 나주시 영산강 둑치에 조성 중인 수변 생태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호안시설 일부가 붕괴됐다.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나주시 이창동 영산강사업 3공구 둑치에 조성 중인 생태공원의 호안 20여m가 내려앉았다.

이 구간은 사업비 67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생태습지, 수생공원, 산책로 등 수변 생태공원이 조성 중이다.

이번 붕괴는 죽산보, 승촌보 등 개방형사를 위해 영산강 수위를 4.8m 정도 높여 공사가 연�되고 공사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배출하면서 지반이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함께 영산강 수질향상을 위해 나주하수처리장

에서 배출하는 처리수를 관로 대신 둑치 내 생태습지를 관통하는 ‘곡선형 개방수로’를 경유해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하루 평균 1만4000~1만5000여t의 처리수가 호안 하부의 토사로 유출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미흡한 구간의 보강 공사를 서둘러 내년 1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무등산길 ‘한국의 경관도로’ 됐다

국토부, 광주·전남 8곳 포함 전국 52곳 선정

국토해양부가 광주 무등산길을 비롯해 빠져난 경치를 자랑하는 광주·전남지역 8곳의 도로를 ‘한국의 경관도로’로 선정했다. 전국적으로는 52곳이 리스트에 올랐다.

국토부는 도로와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지방도 88호선 동구 지산동~답양군 고서면까지 10.9km(무등산과 광주호 감상 길) 등을

경관도로로 정하고, 경관도로별 상세 정보를 담은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흥보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전남에서는 ▲지방도 861호선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산동면 좌사리 간 15km(하늘아래 첫동네 향한길) ▲국도 17호선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오지리 간 10km(섬진강 물길 따라 가는 길) ▲국도 18호선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간 10km(전라선과 잘 어울린 강변길)이 경관도로에 포함됐다.

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자체로부터 경관이 뛰어난 도로를 추천받아 현지 답사와 전문가 평가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흥보책자에는 주변 여행 명소, 지역 축제와 먹을거리, 특산물 정보도 함께 담아 여행객들의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관도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부동산 공매 공고

매각부동산의 목록

물건번호	물건 내 용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	
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1-1	대	519	-
2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3-6	대	330.9	994.88 VAT별도

공매장소

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43 현대빌딩 9층(케이비부동산신식 대전지점)

공매실시일자 및 공매예정가격

(단위 : 원, VAT별도)

공매회사	공매 실시 일자	시 간	물건번호	공매 예 정 가격	비 고
1	2011.12.15. (목)	10:00	1	739,000,000	
2	2011.12.15. (목)	14:00	1	666,000,000	
3	2011.12.16. (금)	10:00	1	600,000,000	
4	2011.12.16. (금)	14:00	1	540,000,000	
5	2011.12.19. (월)	10:00	1	486,000,000	
6	2011.12.19. (월)	14:00	1	438,000,000	
			2	551,000,000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 낙찰율차등율 유효함)

① 당시 공매예정기각이상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함.
② 최고 등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등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고 등가 입찰자에게 낙찰함.

③ 당해 물건이 유찰될 경우 전화처지 공매예정기각으로 10%를 차감하여 차후 공매예정기각으로 함.
④ 본 공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10% 이상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발행 자기암수증(주식형 별도 납부)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①